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Show

5월호

2022 May
Vol. 602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EO 취향저격
발길 머무는 골목길
CEO의 단골 맛집

ZOOM in BCCI
Story of 캡틴 장
Look at Me

Contents



발행일 2022년 5월 2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부산상공회의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EO 취향저격

04

발길 머무는 골목길
 부산을 거닐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08

영화 돋보기
 가정의 달 CEO를 위한
 추천 가족영화 2편



12

CEO의 단골 맛집
 사계절 계절탕이 맛있는 '해금강 횡집'



14

고객의 인문학
 희망이 아프다
 김호중의 <희망가>를 들으며

ZOOM in BCCI

16

Story of 캡틴 장



18

Together with 2030
 엄지척 오디션 UCC로 보는 세계박람회
 UCC공모전 결선 엄지척 오디션



22

기업포커스
 동아플레이팅(주)



26

Look at Me
 스타트업 (주)산타



트렌드 TALK

30

Do You Know MZ?
 MZ세대의 메타버스 생활

32

30·40 세대의 추억 가득한
 '포켓몬빵', '사이월드'가 돌아왔다

경제 KEYWORD

34

고객의 신뢰가 기업의 차이를 만든다

36

BCCI 인포
 부산상공회의소가 드리는
 최신 경영·경제 정보

38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40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44

멤버스 라운지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부산일포유 APP 운영



부산을 거닐다 3편 ※ 거닐다(걷다+읽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을 알고 계십니까?

글_ 손민수 부산여행특공대 대표·이바구스트



1_ 까치고개 초입 아동보호종합센터
2_ 까만색 콜타르를 칠한 나무 전신주

과거 일본인의 공동묘지였던 마을

용두산 공원 맞은편인 현재 중구청이 있는 북병산에서 1907년 이전해 온 일본인들의 공동묘지가 해방 전까지 유지가 되던 곳이자 6.25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정착한 곳. 1960년대 생존을 위해 억척스런 삶을 살았던 산복도로 판잣집 철거이주민들이 이주하여 공동묘지 위에 마을을 이루며 살아온 곳. 대한민국에서 이곳만큼 근현대 역사와 시대의 아픔을 품은 마을이 또 있을까? 살기 위해 부산을 택한 이주민들의 위대했던 삶의 의지에 절로 숙연해지는 마을, 바로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다. 토성역 6번 출구로 나와 부산대학병원을 지나 암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구 2-2번 마을버스로 환승한다. 까치고개 초입에서 갈색의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지나친다.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일제강점기까지 일본인들의 장례를 치렀던 염불막이라 불리던 장제장이 있던 곳이며, 그 이후 지나치는 천주교아파트는 1957년 당감동 이전 전까지는 화장장이 있던 곳이다. 40대 중반 이상의 부산사람들에게 당감동 하면 떠오르는 화장장이 원래는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까치고개도 옛날부터 하단과 낙동강이 있는 서부산과 서구를 지나 당시 중심지였던 광복동, 중앙동을 연결하던 최단거리의 고갯

길로 장제장과 화장장 제물을 탐내던 까치들이 많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임도 알린다. 까치고개의 유래에 고개를 끄덕일 새도 없이 버스가 좌회전을 한다. 급경사를 올라 대성사 앞에서 우리를 내려주고는 다음 정거장인 감천문화마을로 향한다.

비석문화마을의 상징 비석 위의 집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라는 큰 간판 너머 50년은 훌쩍 넘겼음직한 까만색 콜타르를 칠한 나무 전신주가 보인다. 세월을 버티으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을 전신주 아랫길을 걸어 산상교회 앞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상징이 된 비석 위의 집을 만난다. 아미동 산 22번지는 대청로 확장공사와 부산항 매축, 일본인들의 시가지 확장이라는 이슈로 일본인들의 공동묘지가 이전된 일제강점기에도 꾸준하게 공동묘지로 운영되던 곳이다. 일본의 납골묘는 보통 화강암으로 만든 구조물이다.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납골묘의 경우 깊이 50센티 정도의 지하공간이 있다. 거기에 고인의 유골이 담긴 골항아리를 모시고 덮개석으로 덮은 후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을 올린다. 납골묘 1기의 경계 부분은 외책이라 불리는 일종의 난간 형태의 둘레석을 치고 납골묘의 경계를 확실시 한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비석위의 집은 원래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다. 산상교회 앞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도로와 인접한 앞쪽



화장장이 있던 천주교아파트





1_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비석위의 집(과거)
2_ 현재의 비석위의 집

집들이 철거되면서 노출되어 지금처럼 도로와 맞닿은 상태가 되었다. 비석위의 집은 말 그대로 납골묘 위에 지어진 집이다. 딱 납골묘의 경계만큼 집을 올렸다. 외책을 그대로 두고 바로 그 위 쪽과 안쪽에서부터 종이박스를 대고 판자를 엮어 벽을 치고는 그 위에 바로 시멘트를 덮었다. 집주인이 황망스럽게 떠난 것만 같은 이 집은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고 관리가 되지 않아 벽체 일부가 떨어지고 낡은 판자들이 노출되어 있다.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왼쪽을 보니 마을지도가 그려진 안내 간판이 있다. 간판 속에는 눈에 띄는 글씨로 축대비석, 수돗가 비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말 그대로 묘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다. 마을약도와 나란히 피란생활박물관이라는 문구도 보인다. 골목과 인접한 비어있는 집 여러 채의 내부를 생활박물관으로 만들어 피란생활과 마을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6·25전쟁 시기 대한민국의 피란수도였던 부산을 2025년 ‘피란수도 부산’이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지도

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암동 소마마을과 함께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마을이다. 또한 피란생활박물관과 비석위의 집이 있는 두 필지의 피란민 주거지는 2022년 1월 부산시의 첫 번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어려웠던 시절의 삶이 곳곳에 깃들어있는 장소들

비석위의 집을 다시 바라본다. 크기는 딱 2평 정도로 내부 공간은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전부이고 화장실은 없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안내 간판 뒤로 공동화장실이 보인다. 석이와 미아라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그림이 화장실 문에 그려져 있다. 석이는 비‘석’의 석이, 미아는 아‘미’의 미아로 피란 시절의 삶을 스토리텔링하기 위해 탄생시킨 가상의 아이들이다. 피란생활박물관 곳곳은 이들의 어머니, 삼촌 등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며 골목의 초입에서부터 마을의 안쪽으로 이어진다. 묘지의 사잇길이었을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본다. 바닥 곳곳에 놓인 어색한 돌들은 모두 묘지를 이루던 부속물들이다. 골목 한켠으로 주인을 위해 온몸을 밤새 태웠을 누런 연탄재도 보인다. 골목 빨래방이 나타났다. 신형세탁기 여러 대가 놓여있고 샤워실도 있다. 여기에 ‘왜’ 빨래방이..라는 질문은 하지말자.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밖에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오로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신 우리 어른들을 생각하고, 지금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있게 해 준 어른들의 위대한 삶에 감사해주는 순간 ‘왜’라는 질문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3_ 석이와 미아의 그림이 그려진 공동화장실
4_ 비석문화마을 사이 골목길



집 밑을 지탱하는 비석들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미동 일대의 풍경

작은 계단을 내려서니 가슴 높이의 축대가 나타난다. 일본인의 묘지였음을 증명하는 꽃문양이양각된 비석과 한자로 ‘金滿家靈標(금만가영표)’라 쓰인 비문이 축대가 되어있다. 명치42년(1909년) 5월 12일에 ‘똥(몰)’했다는 비석과 하대석으로 썼던 돌도 축대가 되어있다. 흩어진 비석들을 모으고 모아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집을 지은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대부분의 필지가 지금도 묘지인 이곳에서 양성화된 몇몇 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무허가인 이 공간에서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팔 수는 없었고, 땅을 파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섰을 것이다. 그렇게 묘지 위에 세워진 집들과 흩어진 비석들을 모으고 쌓은 축대 위로 하나둘씩 오른 집들이 모여 마을이 되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좁은 골목을 돌아 손 반장을 떠민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일까. 또 하나의 공동화장실을 지나 계단을 오르니 넓어진 도로 위로 구름이 쉬어가는 전망대가 나타난다. 전망대 아래로 낡고 오래된 수많은 집들이 모이고 웅크린 채 손 반장을 바라보고 있음이 느껴진다.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이 나온다. 손 반장의 한숨이 아미동 사람들의 한숨과 만나고 원도심과 산복도로의 작은 집들에서 뿜어져 나온 한숨들과 만나 거대한 생명이 되어 꿈틀거린다. 오늘의 작은 경험만으로도 어른들의 삶 앞에 한없이 겸손해진다. 삶은 위대하다.

가정의 달 CEO를 위한

추천 가족영화 2편

글_ 김은정 영화의전당 시네도시트·영화평론가

가족도 흠칠 수 있을까 <어느 가족>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2018)은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가 이상한 한 가족을 그린 영화다. 2018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현대 사회와 가족의 의미를 연결 지으며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어느 가족>은 할머니, 중년의 부부와 이모, 그리고 어린 아들로 구성된 겉보기엔 평범한 가족이 등장한다. 이들은 비록 낡고 비좁은 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화목하다. 할머니의 연금, 일용직과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부부의 적은 수입, 그리고 약간의 줌도독질로 생계를 이어간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길가에서 떨고 있는 어린 소녀 유리를 발견하고, 밥이라도 먹고자 집으로 데리고 온다. 이후 영화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어딘지 수상한 이 가족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낸다.

혈연 없이 모인 이상한 동거집단

지나치게 야윈 소녀의 몸에서 명과 화상자국을 확인한 가족들은 차마 아이를 부모에게로 돌려보내지 못한다. 그렇게 자꾸만 날짜는 흘러가고, 유리도 학대하는 부모의 집이 아닌 이 가족과 살고 싶어 한다. 집으로 가지 않겠다는 유리의 의사는 부모를 선택한 것과 다름없다. 소녀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가족을 선택했다. 물론 아이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족은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시설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의 막내딸로 받아들인다.

유리는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합법적이지도 않은 가족 구성원이다. 노부요와 오사무 부부는 유리의 이름을 린이라고 바꿔 부르며 아이의



개봉 2018. 07. 26.
등급 15세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일본
러닝타임 121분

사진출처 © 2018. 티켓스트 제공



과거를 지운다. 오사무는 아들 쇼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유리에게도 도둑질을 가르친다. 이 아이들을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를 헤매며 줌도독질을 일삼는다. 학대하던 가족을 버리고 새로 선택한 이 가족이 과연 소녀 유리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영화는 이 수상한 가족의 비밀을 하나씩 보여준다. 유리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혈연 없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다.

줌도독 가족

<어느 가족>의 일본어 제목은 '줌도독 가족'이다. 세탁 공장에서 일하는 노부요는 세탁물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오사무와 어린아이들은 생필품과 장난감을 훔친다. 단순히 이들이 물건을 훔치기에 '줌도독 가족'은 아니다. 이 영화에서 도둑질은 가족이란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다. 도둑질을 통해 끼니를 잇고 공동체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뭔가 훔치는 일로 이 가족은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혈연관계가 아닌 이들은 독거노인인 할머니 하츠에의 연금에 기생한다. 하츠에의 연금이 아니라면 이들은 방 한 칸 얻을 수 없는 도시 빈민이다. 외로운 하츠에 역시 사망한 전남편의 손녀를 말없이 데려와 딸처럼 키운다. 아들처럼 보이는 쇼다도 과거 어느 주차장 차 안에 방임된 아이를 부부가 데리고 온 것이었다. 이들은 마치 버려진 물건을 주워오듯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을 훔치듯 "주워"와 가족 관계를 맺는다. 그리곤 서로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한다.

여느 가족처럼

<어느 가족>은 사회복지체계의 허점, 도시 빈민의 곤궁함, 최저시급과 산업재해 등 노동환경, 현대인의 소외와 외로움, 독거노인과 아동 학대 등 여러 사회문제 속에서 가족의 위치를 묻는다. 이토록 복잡하고 부조리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가.

한집에 살며, 함께 밥을 먹고, 몸을 맞대고 잠을 자지만 혈연도 아니고 합법적 입양도 아닌 이 공동체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까. 반대로, 혈연관계지만 학대와 방임을 일삼고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 관계 역시 진정한 가족이라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영화 속 고령의 하츠에 할머니는 자기 집과 연금에 기생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다들 고마웠어"라고 읊조린다. 우리가 바라는 여느 가족의 모습을 가족이 아닌 특별한 이 어느 가족에서 확인한다.



전부인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집>



개봉 2019. 08. 22.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드라마, 가족
 국가 한국
 러닝타임 92분

사진출처
 © 2019.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살다 보면 때론 부부가 다투기도 한다. 가정 내 다툼은 큰 목소리의 언쟁으로, 물리적 폭력으로, 또는 냉랭한 분위기로 등장한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순간 아이가 느낄 불안을 종종 잊는다. 어른들의 일이니 신경 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안심 시킨다. 영화 <우리집>(2019)은 위태로운 가정을 지켜보는 아이의 시선을 담은 영화다. 영화 속 아이들은 자신에게 전부인 가족이라는 세계가 무너질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는다. 이 영화는 집(가족)을 지키려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가족이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 집은 진짜 왜 이리지?”

초등학교 5학년생인 소녀 하나는 반찬과 부엌일을 걱정한다. 하나가 매일 가족 밥상을 차리는 이유는 부모의 말다툼에 어찌할 바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는 자신이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면 엄마의 기분이 풀어지고, 결국 아빠와의 다툼을 멈출 것이라고 기대하는 착한 아이다. 한편 하나는 우연히 자신보다 어린 유미와 유진 자매를 알게 된다. 이 자매는 다른 도시로 일하러 간 부모 대신 삼촌과 옥탑방에서 살고 있다. 부모와 사이는 좋지않지만 잘 만나지 못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자주 이사 다녀 친구가 없다. 그리고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될까 노심초사한다. 하나와 유미 유진 자매는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집은 진짜 왜 이리지?”



아이들은 피곤함에 지쳐서 다른 사람이 펼쳐놓은 텐트에 들어가 몸을 뉠다. 그리곤 우리 집보다 이곳이 더 좋다고 말한다.

세 소녀만 그려진 종이집, 어딘지도 모르고 금방이라도 주인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자신들만 누워있는 텐트 안에서 행복해하는 세 아이의 표정은 우리 어른들에게 집(가족)이 무엇인가 되묻는다. 가족이 함께 산다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넓은 집으로 옮긴다고 아이들의 마음속 ‘우리 집’이 되지는 않는다.

상자로 만든 집

아이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가족여행을 가자며 때를 쓰고, 술 취한 여직원의 전화가 걸려 오자 아빠의 핸드폰을 숨겨버린다. 또 집을 보러온 사람에게 벌레가 많다, 환기가 안 되고 덥다는 등 집에 관한 험담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마음이 안전한 집일 것이다. 영화에서 아이들은 종이집을 만든다.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이집은 아이들의 현재 상태와 소망을 표현한다. 폐지와 버려진 상자를 이용해 종이를 오려 붙이고 색칠을 한다. 그리고 그 종이집에 사람을 그려 넣는다.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종이집에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가 그려져 있을 것 같지만, 이 종이집에는 엄마 아빠가 없다. 하나와 유미, 유진 이렇게 세 사람만 있을 뿐이다. 한편 유미 자매의 부모를 찾아 떠난 길에서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가족에게 항상 밥 먹자고 말하는 하나는 유미 자매에게도 음식을 권한다. 떡볶이를 사주고 볶음밥을 만들어 먹인다. 가정에서 하나의 제안은 번번이 거절당하지만, 유미 자매와는 즐겁게 식사한다. 하나는 단순히 음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하나의 이 평범한 말은 함께 일상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족임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하나가 소망한 가족여행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유미 자매는 또 이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아이는 영원하리라 믿었던 관계의 종말을 받아들이며 성장한다. 자신들이 꿈꾸던 세계가 무너지거나 변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집>은 아이들의 성장 영화다. 동시에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우는 집은 어떠해야 하는지 평범한 진리를 어른들에게 묻는 영화다. 🏠

사계절 계절탕이 맛있는 '해금강 횡집'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들어선 대표 공업단지인 녹산공단 인근 용원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계절탕 맛집이 있다. 바로 '해금강 횡집'이다.



해금강 횡집 외부

오랜 가게 운영 노하우를 뽐내는 맛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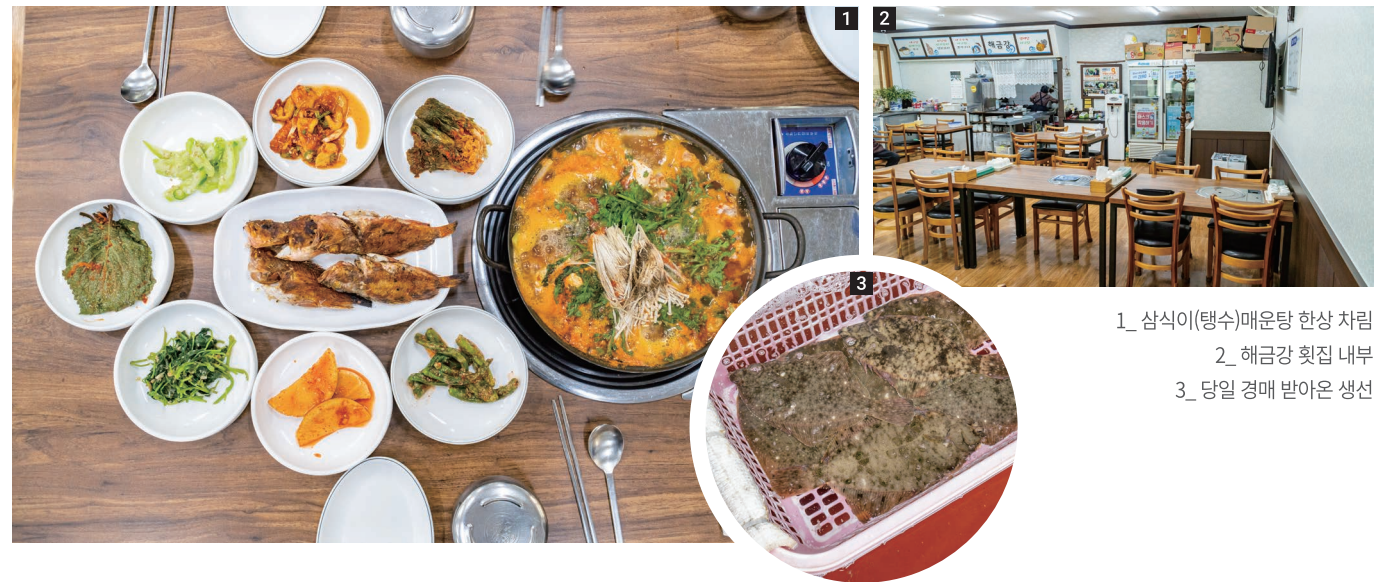
용원에서 '해금강 횡집'이라는 상호로 장사를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라고 하는 사장님. 이전에는 다대포에서 '여정횡집'으로 20여년간, 괴정동에서 '일송횡집'으로 3년간 운영해왔다고 한다. 특히 다대포에서 여정횡집을 운영할 때는 그 일대에서 유명한 집으로 통했다며 많은 단골들이 찾아오는 집이었다고 한다. 거의 40여년간 횡집을 운영해온 만큼 인터뷰를 통해 사장님의 오랜 음식점 운영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연륜이 느껴졌다.

주요 메뉴는 봄·여름·가을·겨울 계절탕

해금강 횡집의 주요 메뉴는 생선을 이용한 다양한 탕과 식사류이다. 계절별로 제철인 생선 활어를 활용해 맛을 낸다. 계절 별로 주요 메뉴는 봄에는 도다리쭈국, 삼식이(탕수)매운탕, 여름에는 갯장어탕, 까치복국, 자리돔 물회, 북어치물회 가을에는 쫄복국, 겨울에는 물메기탕, 대구탕, 아구탕이 주요메뉴라고 한다. 해금강 횡집은 '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메뉴판에 회는 없다. 과거에는 회를 팔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미리 연락을 준 단골손님들에게만 횡감이 있을 경우 제공한다고 한다. 회는 메뉴에 없지만 아침·점심·저녁 모두 식사가 가능하다. 이 덕분에 아침에도 탕으로 속을 든든히하고 아침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골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 27



1_ 삼식이(탕수)매운탕 한상 차림
2_ 해금강 횡집 내부
3_ 당일 경매 받아온 생선

부지런함과 정성이 깃든 음식들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음식점에 손님들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이전에는 손님들이 점심이면 매일 같이 줄서서 기다릴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도 단골손님들이 여전히 많이 찾는 이유는 주 메뉴인 계절탕이 맛있고 함께 나오는 반찬들의 손맛도 일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 메뉴와 함께 나오는 반찬들은 100% 사장님 부부가 직접 만든다. 그리고 생선도 반드시 활어만 사용한다고 한다. 매일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경매를 받아서 살아있는 활어로만 요리를 한다고 하니 음식의 신선도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공단 주변 기업인과 직원들이 단골로 찾는 음식점

해금강 횡집은 녹산공단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인근인 용원에 위치한 가게인 만큼 공단 주변의 기업인들과 직원들이 많이 찾아준다고 한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이 오랜기간 단골로 찾아주는 손님이라고 한다. 공단 주변의 기업CEO들도 식사를 위해 단골로 찾아온다고 말하며,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의 직원들이 특히 많이 찾아준다고 한다. 삼성전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밖에서 식사가 힘들 때는 사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회를 주문하여 먹을 정도로 단골이라고 한다. 아울러 주변의 주요 기업인들도 손님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찾아준다고도 하였다.



해금강 횡집 사장님 부부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음식점

사장님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게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업소라는 플랜카드를 붙여 놓은 적도 있다고 하였다. 사장님은 늘 고객들이 믿고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 다짐하고 노력해 나간다고 하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희망이 아프다

김호중의 <희망가>를 들으며

글_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우리는 희망 때문에 괴롭다. 차라리 바닥까지 절망했다면, 그 절망이 주는 아늑함이 있다. 더이상 안 일어서도 되고, 억지로 힘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밥 먹고 꾸역꾸역 살면 된다. 희망이 있으면 밥 먹는 걸로 충분치 않다. 꾸역꾸역 사는 것은 모욕적이다. 희망이 있으면 아프다.

성악가 김호중은 1910년에 나온 노래를 다시 불렀다. <희망가>는 당시 임학천이 가사를 쓴 민중가요다. 곡은 찬송가에서 가져 왔다.

제목과 다르게 음울은 쓸쓸하기만 하다. 가사도 역설적으로 들린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나?” 마치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 같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 질문의 답은 쉽다. 부귀영화가 인생사 전부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질문에는 반문이 생긴다. “담소화락에 엄병텃병 주색잡기에 침몰하여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반문은 이것이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했다면 차라리 담소화락과 주색잡기에 빠져 세상만사를 잊는 것이 차선책이 아니냐고, 희망으로 버티기 힘들 땐 하릴없이 향락을 탐하고 무언가에 중독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노래에선 ‘주색잡기’라고 표현했지만, 간단치 않다. ‘색(色)’과 ‘사랑’은 비슷하고, ‘잡기’와 ‘취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잡기’는 요즘 말로 ‘덕질’이다. 덕질에 빠지면 세상만사 잠시 잊을 수 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불확실한 희망을 품느니, 차라리 누군가와 연애하고 무언가를 덕질하면서, 그렇게 사람과 사물에 빠져서 사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가짜 희망’으로 몰려간다. 누군가가 구호를 외치고 약속을 남발한다.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일단 믿고 기대고 싶다. 선거는 ‘희망 팔이’다. 정치인은 분명한 어조로 희망을 ‘표’로 환원시킨다. 자본주의에서 희망을 상품화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희망이 그들이 말하는 곳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들은 마치 공갈 젓꼭지를 물리듯이 진짜 희망을 바라는 사람의 입을 외려 막아 버린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간다는 기대, 새 정부에 대한 바람, 마스크가 무색하게 코끝으로 들어오는 봄기운으로 한껏 부풀려진 마음들이 세상을 누빈다. 모두 좋아질 거라고 여기자기서 주문을 거는 듯하다. 그동안 참아 왔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도 작동한다. 그러나 희망은 보상심리가 아니다. 희망은 가치지향적이고, 언어로 표현되기도 어렵다. <희망가>에서 끝내 희망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남이 이끄는 희망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희망을 꿈꾸는 자들은 마치 절벽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 같아 보인다. 고질적으로 희망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삶이 힘겨울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절망의 순간에도 ‘왜’ ‘언제나’ 일말의 희망이 남는다. 절망보다 희망이 더 아프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넥슨 창업자 김정주는 별명이 ‘은돈의 경영자’였다. 그는 자전거, 사진, 레고, 여기에 바이올린과 연극도 했다. 연주회를 할 계획도 있었었다. <희망가>에 나왔던 바로 그 ‘잡기’에 능했다는 건데, 이것들이 정말 ‘잡기’였는지, 아니면 ‘희망’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그는 죽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살려고 했던 것 같다. 어떤 이들은 너무 살려고 애쓰다가 죽음에 이른다. 김정주 같은 이들에게 희망이 불치병 같다.

그렇더라도,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살지 않았을까. 희망 때문에 아프지만, 희망 때문에 아픈 한 사람만 곁에 함께 있었으면 서로의 희망을 보살피며 오래오래 살지 않았을까. <희망가>의 결론은 이것이다. 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희망 때문에 아프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끝내 희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한 명만 곁에 있다면, 그 희망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 📌



Story of 캡틴 장

#01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모인날(2022. 4. 2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의 부산상공회의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최태원 회장님 우리 경제 살리는데 함께 힘내보십시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다함께 화이팅!



최 회장님 이곳이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 복합입니다. 개최할만하겠지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실은 비행기 누가누가 더 높이 던지나~

#02 4월의 캡틴장

2025 세계도평방지구 총회 유치위원장으로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도평방지구 총회 유치위원회 2022. 4. 1.



시장님! 함께 힘모아서 글로벌 부산 도시 땡글어 가입시데이~~

부산 국제재매우호도시 협의회 위촉식 2022. 4. 1.

구본길 선수와 함께 2025 세계도평방지구 총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2022 세계도평방지의 날 기념식 2022. 4. 12.



"우리 후배 기업인들 함 보러 가보카예?"

차세대기업인클럽 창립 14주년 기념식 2022. 4. 12.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UCC 공모전 엄지척 오디션 UCC로 보는 세계박람회

세계박람회는 18세기 말부터 프랑스에서 기술진보를 장려하기 위해 국내 산업전시회를 개최하던 것이 각국에 전파되었고, 1851년 영국이 최초로 “수정궁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19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신제품·신기술을 출시·보급하면서 세계 경제·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하는 인류 문명의 창조의 장이 되고 있다.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에게 다가온 발명품들을 UCC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으로 알아보자.



1851
런던박람회
세계 최초의 엑스포, 증기기관차 전시



1889
파리엑스포
파리의 상징 에펠탑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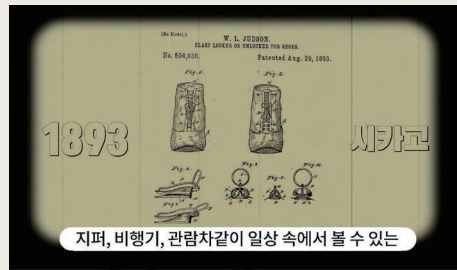


1862
런던박람회
플라스틱, 냉장고 얼음 제조 기술 공개



1876
필라델피아 엑스포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최초의 전화기 공개

“
2030세계박람회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해서
부산도 인류의 새로운
문명 창조에 함께 합시다!
”



1893
시카고 엑스포
형광램프의 전신 인광램프 공개, 지퍼 공개



1904
세인트루이스 엑스포
최초 비행기 전시



1939
뉴욕엑스포
최초 TV 전시, IBM 전기 타자기, 천공카드를 활용한 전자식 계산기 전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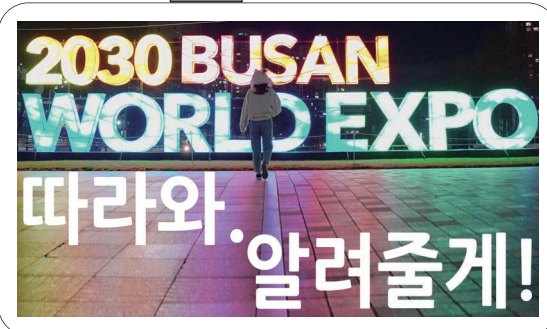
UCC공모전 결선 엄지척 오디션

부산시민들의 열정 담긴 다양한 작품 81편 출품 결선 방송 오디션 앞뒤



*KNN 5월 8일(일) 12:10분 방영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엄지척 오디션 결선 진출작 8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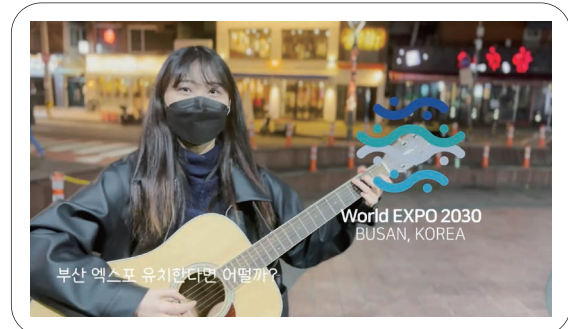
2030세계박람회, 어디에서 유치될까



부산 청년들의 꿈을 위해! 2030 부산월드엑스포



2030 월드엑스포는 부산에서!



유치 어떻게



격세지감



부산에 유치해 MV



부산아가!



부산에서 보내는 편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한 시민들의 열정 돋보여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25일(목)부터 3월 31일(목)까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진행한 UCC공모전 엄지척 오디션에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재기 발랄하게 제작된 총 81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다양한 개성의 작품들 줄이어

이번 공모전에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국내 1호 전통 피리박사, 랩퍼, 웹툰 작가 등 각계의 전문가 및 부산 출신 현지 개그맨도 출품하면서 2030부산월드엑스포에 대한 부산시민의 유치 열기를 대변하였다. 특히 UCC 공모전 특성상 동영상 제작과 편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접수기간도 타 공모전에 비해 짧은 35일에 불과했음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출품된 작품들은 관광명소와 대표먹거리 등을 촬영하여 부산의 숨은 매력을 프리스타일 랩이나 댄스, 공연을 통해 볼거리 위주로 풀어낸 작품들과 인터뷰나 영화패러디 등을 통해 엑스포 개최효과를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엑스포 로고를 애니메이션, ASMR, 그래픽아트와 같은 기술로 녹여낸 작품들과 '2030엑스포 유치송'을 주제로 한 다양한 레포츠 챌린지 및 외국인을 위한 영어 소개 홍보영상 등도 눈길을 끌었다.

방송오디션을 통해 최종수상자 선정

심사대상 78개 작품들은 4월 7일 18시까지 유튜브 좋아요 수집계와 이후 개최된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쳤으며 8개의 작품이 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결선 엄지척 오디션에 진출하게 되었다. 결선 방송 오디션에 진출하게 된 작품은 등 8개이며 5월 8일(일) 12시 10분 KNN 엄지척 오디션 방송을 통해 결과를 알 수있다. 📺



표면처리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선도기업, 동아플레이팅(주)

동아플레이팅(주)은 1997년 설립된 바렐 전기표면처리 전문업체로 자동차 조향 장치와 안전벨트에 조립되는 볼트와 너트 부품이 주력 상품이다. 현대, 기아, 볼보, 포드 등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2차 협력사로 대표적인 표면처리 기업이다. 2018년부터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하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성장 중에 있으며, 6대 뿌리산업 중 하나인 표면처리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동아플레이팅 건물 전면 모습



동아플레이팅의 업적들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와 직원들

보험소장이 일구어낸 동아플레이팅의 역사

보험소장으로 일하던 30대 여성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표면처리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동아플레이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찾아간 세무서에선 위장 사업장이란 오해를 받으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사업 역시 업계에선 한 달도 못 할 것이라는 편견만 가득했지만 동아플레이팅은 SQ인증, IATF16949 인증, 제145호 기능한국인 선정,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뿌리기술 전문기업, 위험성 평가 우수기업 등 다수의 인증과 수상의 성과를 보인 표면처리업계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제145호 기능한국인 선정 된 이오선 대표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찾아낸다

과거부터 표면처리는 대표적인 3D 산업이다. 동아산업 시절에 근로자들이 앞치마, 고무장갑과 장화를 필수로 착용할만큼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고 한다. 그러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동아플레이팅의 이오선 대표와 함께 직원들은 끊임없는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며 과거와는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동아플레이팅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아플레이팅(주)의 스마트 팩토리 라인



**스마트팩토리와 함께 5성급 호텔 같은
표면처리 기업을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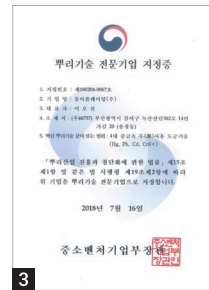
동아플레이팅을 언급할 때 스마트 팩토리를 빼놓을 수 없다. 동아플레이팅이 표면처리 업계를 선도한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남보다 앞서 새로운 도전을 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 ERP(전사적자원관리)를 시작으로 2015년 MES(제조통합관리)를 이어오며, 2018년 삼성전자와 함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를 진행하였다. 완제품 불량률 60% 감소, 제조리드타임 25% 감소, 작업 공수 35% 감소로 시간당 생산량 32% 증가라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다. 이로 인하여 스마트공장 유공자 포상을 수상하고 여섯 차례 스마트 사업을 진행하며 고도화 2.5단계에 이르렀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팩토리 이상훈 센터장이 동아플레이팅에 방문하였을 때 “삼성보다 동아플레이팅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더 잘 쓰고 있다”며 칭찬을 할 정도이다.

스마트팩토리와 함께 찾아온 변화

스마트팩토리로 공정이 자동화되고 전산화되자 회사는 젊어지게 되었다. 청년 근로자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회사가 되었다. 직원들에게 더욱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축 오피스텔 기숙사와 리조트, 호텔 회원권 등을 사내 복지로 도입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이후 동아플레이팅의 사무실 외벽을 투명유리로 설치하여 현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온 기업들과 학생들이 동아플레이팅 공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기관 및 기업이 방문할 때마다 표면처리 산업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 1_ 스마트 팩토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2_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으로 회의하는 직원들의 모습
- 3_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젊은 인재들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기업을 향해

보통 표면 처리업은 3D업종의 대명사로 불린다. 하지만 동아플레이팅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젊은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젊은 인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이다. 표면처리업은 산업의 기반이 되는 6대 뿌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업종이지만 산업에서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동아플레이팅은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청년들과 활발하게 소통해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표면처리 사관학교를 만들어 표면처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갈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동아플레이팅은 AI, 메타버스 등 신성장 분야를 지속적으로 사업에 접목하여 표면처리 업계에서만 아닌 제조업 전반을 통틀어 혁신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도약해 나가는 것을 꿈꾼다.

•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와의 현장 인터뷰 •

Q — 동아플레이팅 하면 스마트 팩토리로 유명하다.

동아플레이팅에게 스마트 팩토리란?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면서 고도화를 통해 1단계, 2단계, 2.5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알면 알수록 더욱 재밌게 다가왔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배우기 위해 출근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초등학교 때 소풍가기 전날 밤의 마음처럼 출근이 설레이기도 하였다. 열정적으로 멘토들에게 시스템을 배우다 보니 전 라인에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서고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었다. 현재 생산하는 제품이 6천여 종류가 되는데 이제는 바코드 하나만 찍어도 품번 및 관련 정보들이 나와서 작업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동아플레이팅에 새로운 전환점이다.



Q —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 나가고 있다.

대표님에게 도전은 무엇인가?

늘 새로운 것에 열려있고 도전하고자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변화와 도전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직원들도 어려워한다. 하지만 배워 갈수록 직원들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들을 더하고 고도화 해간다. 이러한 과정을 보고 있으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생긴다.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지만 우리는 이미 신산업 영역인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의 공정 하나하나를 메타버스 프로그램에 담아서 가상의 메타버스 공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공정을 통해 동아플레이팅의 공정에 대한 설명도 해나갈 계획이다.

Q —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 같다.

평소 어떤 CEO 인지?

직원들이 평소 나를 엄마 같다고 많이 표현한다. 보통 직원들이 회사 대표가 자리를 비우면 좋아하지 않나? 우리 직원들은 내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회사에 얼른 와 달라고 한다. 그리고 평소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이야기를 계속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CEO로서 열려있는 마인드로 직원들

에게 다가갈수록 더욱 끈끈해지고 직원들도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또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차, 반차, 반반차, 그리고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편해지면 업무능률 또한 자연스레 오르게 된다.

Q — 앞으로의 계획은?

요즘도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업무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일이 매우 재밌다.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에 이어 RPA 기술도 도입하여 사무자동화도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앞으로 현재 도전중인 메타버스와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다. 또한 젊은 직원들이 계속 일하고 싶어하고 건강하게 만족하며 다닐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해 가는 것이 목표다.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는 부산상공회의소 24대 부회장,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산업인력공단의 HRD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평소 후배 양성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통해 부산 테크노파크 지산학 협력 브랜치 21호를 개소하였으며, 지역사회와 나누자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오며 아너소사이어터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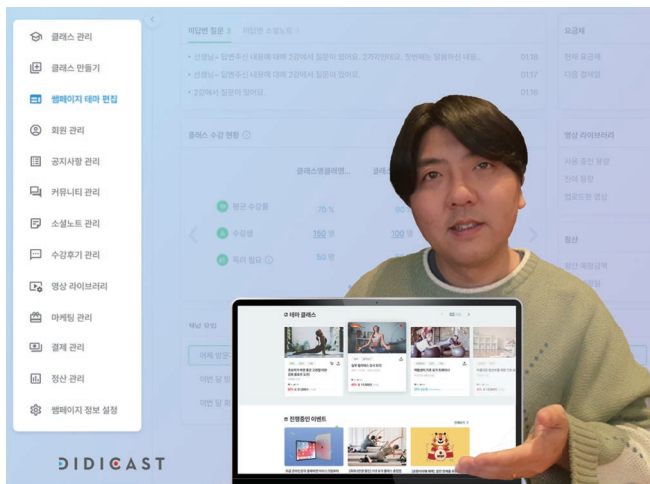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next rise startup 전시회 참가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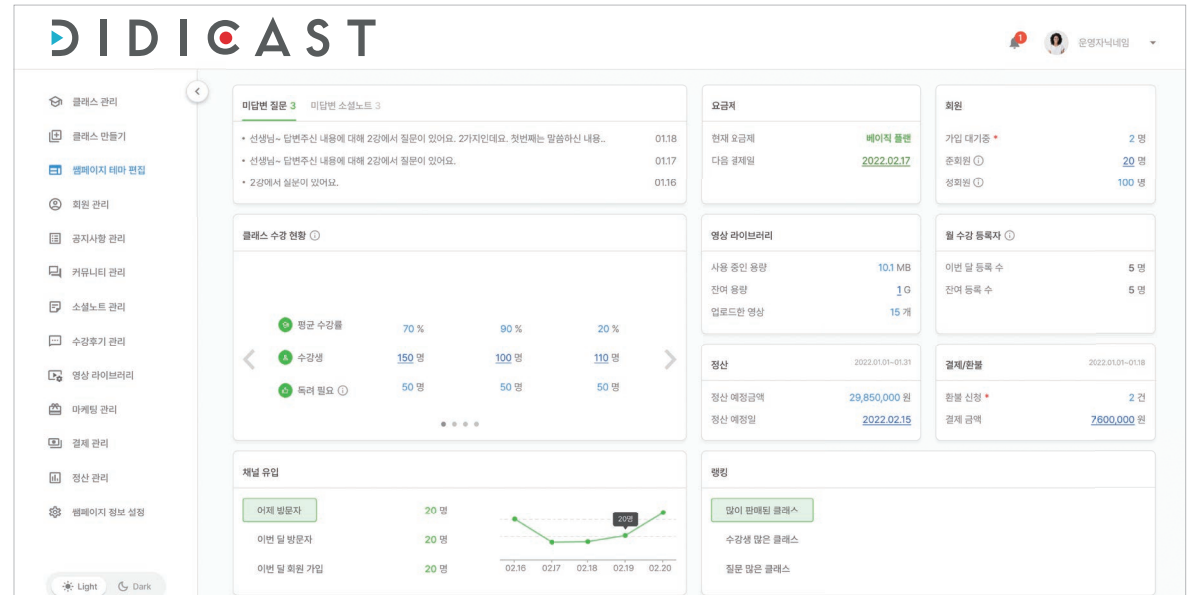
모든 교육 담당자들의 쉽고 편한 온라인 교육을 돕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주)산타 **santa**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육자와 수강생들은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경험하게 됐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단순 영상 기반의 온라인 강의를 넘어 학습의 본질인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온라인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강사와 교육 담당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산타는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기관과 개인 강사의 반복적인 일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수강생의 성장을 돕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디디캐스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디디캐스트를 설명하고 있는 박기웅 대표



누구나 지식콘텐츠를 쉽게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디캐스트 서비스 화면

자동화 서비스로 교육 담당자 업무를 70% 절감

디디캐스트는 교육자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개설부터 결제, 수강생 관리와 학습관리까지 토탈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누구나 손쉽게 강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VOD, 영상 링크, 라이브 등 원하는 모든 형태의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관리까지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공해준다. 디디캐스트는 1,000여개의 우수 기업들이 사용하며 교육용 플랫폼으로 실무자들에게 활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디디캐스트를 도입한 메가마트와 원더플레이스와 같은 기업에서는 사내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디디캐스트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방법 대비 교육의 질이 올라가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교육 플랫폼 서비스의 시작은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부산으로 발령 받은 박기웅 대표가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로 이동하던 중 교육 인프라 불평등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면서 부터다. 박기웅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지식 콘텐츠를 쉽게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디캐스트를 만들었다. 현재는 가속화 된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교육자의 업무를 최대 70%까지 줄이면서 질 높은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수강생에게 전달하고, 수강생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노트북과 웹캠만으로 제작이 가능한 영상 제작 프로그램

코로나19 장기화로 드러난 원격 교육의 한계점

코로나19 환경에서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오는 원격 수업은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었으나 오히려 수많은 한계점도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단순 전달 방식의 교육은 수강생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제성이 낮아 학습 성취도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고 운영하기까지 교육 담당자가 감당해야하는 부수적인 일들이 배로 늘어난다. 온라인 수강생 모집부터, 출석 체크, 테스트 작성, 입력, 채점 그리고 학습 관리까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과 눈짓 한 번에 해결이 되었을 것들에 하나하나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해야 한다. 디디캐스트는 이러한 원격 교육의 한계점을 온라인의 특성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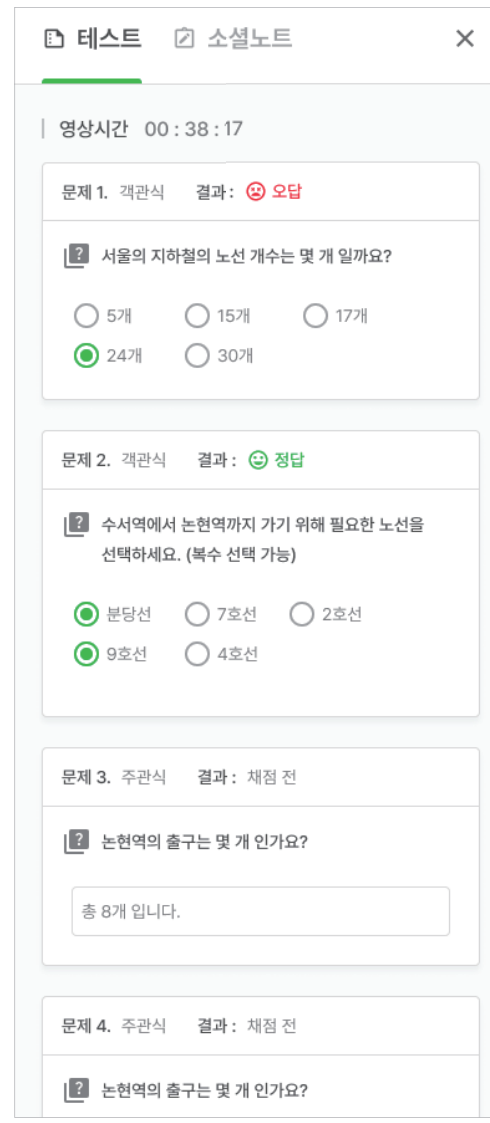
놓쳐서는 안되는 교육의 본질, 수강생의 성장에 집중하다

디디캐스트는 교수 설계 방법론 중 'ADDIE Model'에 입각하여 교육자들이 수강생의 성장을 만들어 내는 단계를 기술을 통해 자동화시킨다. 교육 개발 및 콘텐츠 확보를 돕기 위해 영상 제작 서비스를 만들었고, 교육 운영 및 교육 평가를 자동화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 및 고도화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ADDIE 단계(학습자 분석 → 학습 설계 → 교육 개발 → 교육 운영 → 교육 평가)별 교육 담당자의 반복적인 일들을 모두 줄여주는 단계까지 진화시킬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자들은 디디캐스트를 통해 ADDIE Model을 기반으로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 하면서 학습자 맞춤 교육을 시행하는게 수월해진다. 수강생별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

추천이 자동으로 가능해지고, 교육 담당자는 수강생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즉문즉답이 가능해지는 온라인 학습

디디캐스트는 수강생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육 담당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자 가장 먼저 시장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교육자들을 직접 만나 집요하게 인터뷰했다. 그 결과, 온라인 교육에서 담당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모니터 너머 수강생들이 제대로 듣고 있는지, 혹은 이해한 것은 맞는지 도통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것이었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동영상 강의를 단순 플레이만 해놔도 이해도 100%, 진도율 100%가 되버리는 온라인 교육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디디캐스트는 이러한 고질적인 온라인 교육 학습 문제를 온라인 강의 플레이 중에도 다양한 테스트를 쉽게 삽입할 수 있는 테스트 위자드 기능으로 해결 하고자 한다.



자체 퀴즈 기능

VOD 영상 파일이나 Live 강의, 유튜브 등의 영상 링크에서 교육자가 원하는 모든 구간에 이해도와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쉽게 만들고 수강생의 테스트 결과를 쉽게 분석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교육에 최적화 된 서비스, 디디캐스트

디디캐스트는 나만의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개설, 강의 결제, 교육 운영, 학습 관리 등 온라인 교육 전 과정의 편의성을 높여 교육 담당자의 업무는 혁신적으로 줄이고, 수강자는 더 고도화된 학습 관리를 제공받는데 기여하는



(주)산타 신규 임원 영입

서비스 플랫폼이다. 특히 디디캐스트는 교육기관이나 강사의 독립적인 온라인 브랜딩이 가능하도록 나만의 교육 홈페이지를 레고 블럭 조립하듯 템플릿 형태로 쉽게 제작 할 수 있는 위자드 플랫폼 기능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구글 등의 포털에 검색 노출이 가능하고, 수강자 모집과 홍보가 쉬워진다. 또한, '수업 → 시험 → 측정 및 분류 → 과제' 4단계 과정에서 필요한 1:1 맞춤 질의응답과 공지 안내, 학습 독려, 같은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들 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는 수업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보다 원활한 교육이 가능해진다.

꿈꾸는 모든 교육 담당자들의 온라인 교육 파트너로 성장

디디캐스트는 2022년 새로운 사업 도약 체비를 마쳤다. 지난 5년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현재 진행중이며 오는 6월 '디디캐스트 2.0'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전문가와 개발전문가, 에듀테크 전문가 까지 다수 영입하여 팀빌딩을 마무리하고 달려나가고 있다. 2022년 (주)산타는 IT 경험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시간과 비용 문제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19만 개의 교육 기관, 30만 명의 선생님의 든든한 온라인 교육 파트너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Do You Know MZ?

MZ세대의 메타버스 생활

들어는 봤니? 메타버스!

“빌보드 싱글 1위라는 대기록을 쓴 방탄소년단의 안무 뮤직비디오를 TV,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아닌 온라인 게임 속 콘서트장에서 공개하여 세계 각지의 팬들은 ‘아바타’의 모습으로 가상공간에 모여 공연을 관람하고 춤을 따라 하며 열광하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들은 가상공간에 입점하여 큰 화제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렇게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메타버스(metaverse)’라고 한다. 메타버스는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단어로 1992년 미국 SF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쓰인 용어이며, 단순한 가상 공간이 아니라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사이버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MZ세대는 왜? 메타버스에 열광할까?

메타버스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릴 정도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미국에는 포트나이트와 로블록스가 국내에는 제페토 등이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로블록스는 미국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 플랫폼이며 아바타를 통해 가상세계를 탐험할 수 있고, 직접 게임을 제작도 할 수 있다.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는 얼굴 인식·증강현실 등을 이용해 아바타와 가상세계를 만드는 플랫폼이다. MZ세대가 개성세대인 만큼 메타버스에서는 끊임없이 창작이 가능하며 현실세계와 달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과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가 대중화 되면서 아바타를 통한 소통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컴퓨터에 익숙한 MZ세대가 메타버스에 더더욱 열광하고 있다.



메타버스에는 뭐가 있을까?

1 — 메타버스 캠퍼스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힘든 상황에서 많은 대학 관계자들은 메타버스 내 캠퍼스 맵을 제작하여 메타버스 속 입학식, 졸업식 등 다양한 행사 및 학사 운영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순천향대학교는 2021년에 세계 최초로 대학교 입학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 입학식을 진행했었다.

2 —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도 메타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본인 소속사의 가수 혹은 회사 자체를 홍보하는 방안으로 사용하거나 소속 가수의 새로운 앨범이 나올 경우 플랫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굿즈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메타버스를 활용중이다. 대표적인 예로 ‘포트나이트’, ‘네이버 제페토’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가수들의 가상 콘서트를 열어 음악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다.

3 — 패션 브랜드

패션 브랜드 구찌, 루이비통 등도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콜라보를 통해 자신들의 브랜드 의류를 출시하고 이용자들에게 현실 세계에서는 비싼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의 아바타를 꾸며 대리만족을 느끼게 함으로써 브랜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입점 기업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게임, 교육 부동산, 헬스케어, 교육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더욱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의 메타버스는?

MZ세대는 메타버스로 출근하고, 쇼핑하고, 소통한다. MZ세대는 미래 소비시장의 주역이 될 세대로 메타버스는 MZ세대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많은 기업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와 홍보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MZ세대를 이해하고 함께하고 싶다면 메타버스 세계에 기업의 꿈을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

MZ세대에 공감하는 길! 신조어 퀴즈

Q1.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기업에 ‘착한 소비’로 보답하겠다는 의미를 일컫는 말은?

- ① 착소 ② 선기착소 ③ 혼쫌내다 ④ 돈쫌내다

Q2. 다음 중 올바른 사용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야 대박! 저 사람 완내소
- ② 요즘은 길거리에 마기꾼이 너무 많은거 같아.
- ③ 이번 도시락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 같아 완전 마해자.
- ④ 어제 그 영화 봤어? 완전 개편리편이야.

Q3. 다음을 올바르게 연결하십시오.

- | | |
|--------|--------------------------|
| ① 설참 | A. 고공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
| ② 고진감래 | B. 설명 참조 |
| ③ 임구 | C.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
| ④ 쉽사재빙 | D. 이미 구독했음 |

Q4.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오늘 몸무게 측정했는데, 또 3㉠나 늘었어 진짜 왜 그러는 거지? ㉠반네

- ① 열 ② 킬 ③ kg ④ 키로

Q5. 다음은 MZ세대 카톡 내용의 일부이다. 다음 중 올바른 대답은?

- A.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B. 맞아 너무 좋아 벌써 보고싶어
 A. 나도 보고싶어 이뻐 죽겠어
 B. 나 얼마나 좋아해?
 A. 좋아하지는 않고 널 사랑해
 B. 나도 널 _____

- ① 사랑해 ② H워얼V ③ Love you ④ I♥U

Q6. 다음 중 신조어인 것은?

- ① 사귀다 ② 삼귀다 ③ 이귀다 ④ 일귀다

정답 3개 이상 맞췄다면 MZ세대와 가까워질수 있다!

- A1. ④ 돈쫌내다:** 돈과 혼쫌내다를 합친 말로 착한 사람이나 기업 보고 돈 써서 혼내주겠다 라는 뜻
A2. ③ 마해자(마해자: 마스크 벗은 게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
A3. ① ↔ ② / ② ↔ ① / ③ ↔ ④ / ④ ↔ ③
A4. ③ kg: 킹반네의 다음 버전(케이쥬반네)
A5. ② H워얼V: H워얼V를 180도로 뒤집으면 ‘사랑해’
A6. ② 삼귀다: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알아가며 친하게 지내는 단계를 의미

30·40 세대의 추억 가득한 ‘포켓몬빵’, ‘싸이월드’가 돌아왔다

미개봉 포켓몬빵 팔아요, 직거래로 개봉하시고 스티커만 주시면 됩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글의 일부이다. 대체 얼마나 맛있는 빵이면 사람들이 구하지 못해 안달났을까? 그리고 왜 ‘미개봉’, ‘개봉’여부가 중요한 걸까? 주인공은 ‘포켓몬빵’이다. ‘포켓몬빵’은 SPC삼립에서 1998년에 출시되었던 빵으로 빵에 동봉된 띠부띠부씰(캐릭터 스티커) 수집 열풍을 일으키며 월 평균 500만개가 팔렸던 빵이다. ‘포켓몬빵’은 단종된 이후 지속적인 재출시 요청이 있었고 올해 2월 23일 ‘돌아온 포켓몬빵’으로 재출시되었다. 재출시 이후 한달만에 610만개의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고는 바로 빵에 동봉되어 있는 띠부띠부씰 덕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띠부띠부씰은 붙였다 떼다 할수 있는 캐릭터 스티커로 총 151종/159개의 스티커가 있으며 2종의 스티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같은 확률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 1990년대에 ‘포켓몬빵’을 접하고 수집했던 30, 40세대들이 20년이 지난

지금 어린시절 로망을 다시 도전하는 것처럼 수집하지 못했던 스티커들을 수집하기 위해 더욱 열광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열망들이 반영되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켓몬빵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다.

이러한 대란이 이번이 처음일까?

‘허니버터칩’과 ‘순하리 소주’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대란이 있었다. 한정된 물량만 제작하여 판매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헝거 마케팅’으로 공급이 적어 구매하지 못하는 대란이었다. 하지만 이런 ‘헝거 마케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발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이 중요하다. ‘포켓몬빵’도 대란이 지속되자 ‘헝거 마케팅’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생겼었고 SPC삼립측은 사과문을 통해 24시간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지만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포켓몬빵’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빵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져 MZ세대 사이에서도 ‘득템’을 보여주기 위해 SNS인증을 통해 남들이 구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했다고 자랑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과거 ‘포켓몬빵’을 사먹던 아이들이 지금은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3040세대로 성장하였다. 현재 3040세대들은 과거에는 돈이 없어 사지 못했으나 구매력이 충분한 어른이 되어 다시 한번 ‘포켓몬빵’ 띠부띠부씰 수집 삼매경에 빠져 있다.

cyworld
사이좋은사람들, 싸이월드



출처: 구글플레이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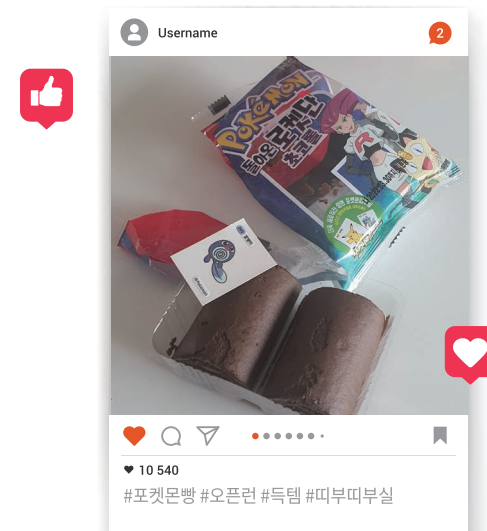
추억 보물상자 ‘싸이월드’ 다시 우리 곁으로...

싸이월드를 기억하는가? 싸이월드 운영사 싸이월드제트는 수차례 재출시 시기를 연기하며 지난 4월 2일 싸이월드 서비스를 재개하였다. 서비스 재개 후 싸이월드는 한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로 집계되었다. 싸이월드는 1999년 한국의 첫 SNS였던 만큼 그 시절 3040세대에서는 접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든 수준이다. 이처럼 3040세대의 마음을 두드리는 싸이월드의 재오픈은 3040세대의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싸이월드와 콜라보 준비에 바쁘다. 인터넷 쇼핑 플랫폼 위메프에서는 싸이월드에 미니룸을 개설하였고 GS리테일은 쇼핑 채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은행에서는 싸이월드 내 가상화폐 ‘도토리’를 활용한 금융상품까지 제공할 예정인 만큼 싸이월드가 가져다줄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학자들은 포켓몬 빵과 싸이월드와 같이 ‘레트로 마케팅’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어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마케팅이나 광고업계에서 ‘불안한 시대에 복고풍을 꺼내라’는 말도 있다. N포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실업률 최고, 미래에 대한 불안, 자가 마련의 어려움 등 현재에 대한 불만에 대한 반동이 ‘레트로 마케팅’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용돈으로 ‘포켓몬빵’을 사던 아이들이 ‘싸이월드’로 개성을 표현하던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도 다시 그것을 찾고 있는 이유이다. 🧑🏻‍🦱



출처: SPC삼립



고객의 신뢰가 기업의 차이를 만든다

글_ 정필영 IMI변화경영연구원 원장

어느 날 아침, 미공군은 남극기지의 주치의로 파견된 로널드 셔먼스키 박사가 췌장염에 걸려 긴급후송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극의 기상악화로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게 되자 관계자들은 안타까운 상황에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로널드 박사의 담당 보험사인 A사에도 전해졌습니다. 로널드 박사는 남극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위급상황시 후송이나 배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당시 남극 날씨는 너무 안 좋았고 응급후송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기에 보험가입장에서는 구조보다 배상을 선택하는 쪽이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사는 “고객들이 비즈니스나 일상생활에서 최고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다”는 회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후송 비행기를 띄웠고, 로널드 박사를 성공적으로 구조하였습니다. 그 당시 A사의 부회장이었던 마틴 셸리번은 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순한 회사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생명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고객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식은 미국 전역에 특종으로 소개되었고, A사를 향한 고객의 신뢰도가 급상승하며 미국을 대표하는 보험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신뢰’가 기업경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리오프닝(Reopening)의 시대에 기업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경영자와 관리자들에게 매출을 의미하는 ‘SALES’의 각 철자를 머리글자로 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고 기업의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S

Self-confidence

확신을 가진 임직원들이 고객의 마음을 얻는다

조각가와 석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느냐고 되묻는 분도 있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신과 계획을 가지고 돌을 깨는 사람을 조각가라고 하고, 정해진 모양과 순서대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석공이라고 합니다. 즉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고객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영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소중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임직원들은 결코 고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A

Activity

행동에 앞서 세련된 매너와 에티켓으로 무장하라

옛날 어느 마을에 짚신장수 부자(父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날마다 짚신장수 부자는 짚신을 정성껏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든 짚신은 장이 열리고 얼마되지 않아 모두 팔려나가는데, 아들이 만든 짚신은 해가 넘어가도록 팔리지 않아 남은 짚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기가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비결을 알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고령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때 아들에게 “털, 털, 털”이라고 짧은 유언을 남기시고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똑같은 재료와 방법으로 만든 짚신이었지만 아버지는 짚신을 완성할 때 마다 삐죽삐죽 나와 있는 털들을 잘라내어 깔끔하게 만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비결이었습니다. 고객이 나를 만나는 순간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과 태도 그리고 표정까지도 세련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빠져 나와 있는 짚신의 털은 고객을 아프게도 불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L

Listening

우리에게는 5분밖에 없다

마쯔시다 고노쓰케는 “판다(Sold out)는 말을 해서 안 된다. 오로지 고객의 사주심이 있을 뿐이다. 고객은 어떤 경우에서도 판매원의 팔고자 하는 의욕대로 구매해 주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종업원의 급여는 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주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언제부터가 우리는 고객들을 만날 때 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적이 급급해서 고객의 마음을 살피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면 고객들은 그 분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과 30분을 만난다면 25분은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시간은 5분밖에 없습니다.

E

Enthusiasm

지혜의 법칙을 기억하라

‘적당히 하고 싶을 때 변명이 나오고, 중도에 포기하려 하면 불평이 나오고, 사활을 걸면 지혜가 나온다’ 어떤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쯤은 내가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사활을 걸면 지혜가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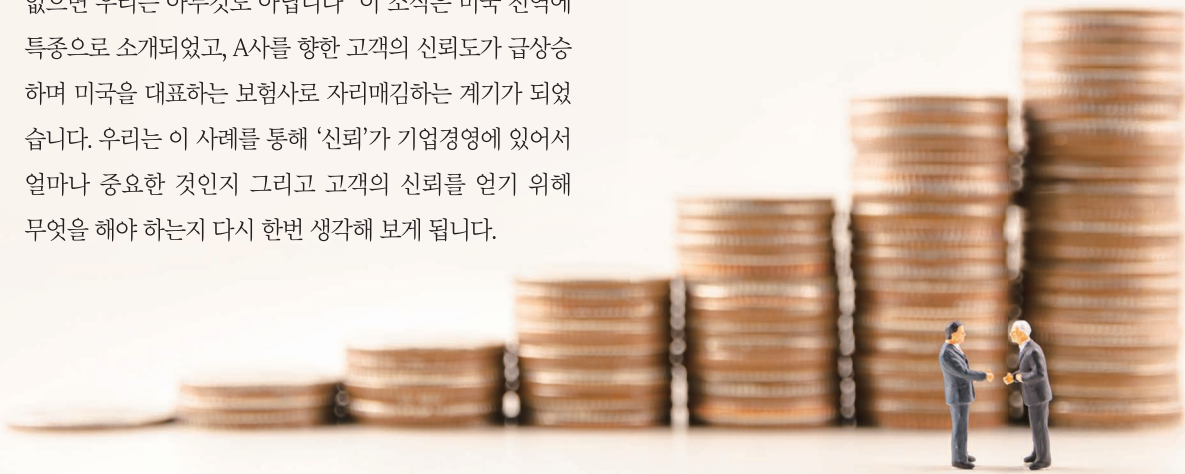
S

Service

상품보다 가치를 팔아라

가치란 소비자가 느끼는 혜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객이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지불하는 비용(돈, 시간...)이 고객이 느끼는 가치보다 더 크다고 느낄 때 고객들은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누적되면 반드시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경영의 초점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위대한 기업의 필수조건은 ‘존경’입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신뢰의 구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회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큰(Big)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Great)기업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몽골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3.9정도이고, 가장 좋은 사람은 7.0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드넓은 평원에서 막힐 것 없이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자연환경이 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멀리 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높이 보고, 크게 봅시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넓어진 시력으로 전직원들의 꿈을 담을 수 있는 활기찬 직장을 만들어 봅시다. ‘툰소여의 모험’의 저자 마크 트웨인(본명: Samuel Langhorne Clemens)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는 위대한 기업, 존경받는 경영자에 대한 꿈이 ‘신뢰’라는 동력을 얻어서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마음속 깊이 응원합니다. 🚀



부산상공회의소가 드리는 최신 경영·경제 정보

참고: 대한상공회의소 인포

Information 01

헬스케어 3.0시대... '맞춤형 웨어러블 기기'가 뜬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웨어러블 기기와 '헬스케어'의 결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인에게 맞춘 비대면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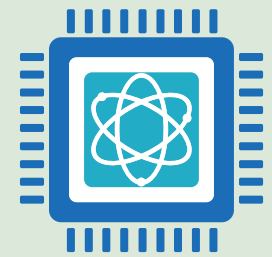
근대화 초기 대규모 전염병에 대응해 공중보건에 집중했던 '헬스케어 1.0'을 시작으로, 병원의료 중심으로 개별 치료가 이뤄지는 '헬스케어 2.0'을 거쳐, 이제는 맞춤형 스마트기기를 통해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케어 3.0'시대에 도달했다. 혈액 검사 없이 심장마비나 암 등의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패치 형태의 '웨어옵티모'나, 잘못된 걷기 습관을 분석해주는 레깅스 형태의 '이노텍스틸' 등이 헬스케어 3.0시대의 대표적인 기기이다.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기기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시장은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GMI는 시장규모가 연평균 22.9% 성장하여 '27년까지 약 1,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헬스케어용 손목밴드 등 기기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선 이어폰 등의 웨어러블 기기 산업에선 앞서있으나, 헬스케어 분야는 그렇지 못하다. 그동안 규제산업으로 분류되어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헬스케어 기기 산업에 활로가 열리고 있다.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제도 개선, R&D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상황과 시장 수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격적 R&D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강점인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헬스케어와 어떻게 접목해 나갈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글로벌마켓인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맞춤형 웨어러블



양자컴퓨터

세액공제



Information 02

다가오는 양자컴퓨터 시대...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꿈의 컴퓨터라 불리는 '양자컴퓨터'의 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양자컴퓨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물류·생산관리 등 기업의 제반 경영활동에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줄 뿐 아니라, 우주항공·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시키는 '게임체인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양자컴퓨터를 통해 기업들이 창출해 낼 가치를 80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자컴퓨터에 대한 기술은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대략 4.5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나는 등 다소 뒤쳐져있는 실정이다.

양자컴퓨터 분야에 후발주자인 우리가 주요국과 경쟁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및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기업도 양자컴퓨팅 기술과 시장의 변화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검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formation 03

협력사 ESG 교육비용 세액공제 받으세요.

올해부터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사에 ESG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 대상은 대·중견기업이 협업을 통해 지출한 인건비나 컨설팅 비용 등이다. 대기업은 비용의 최대 2%,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를 R&D 세액공제 명목으로 법인세액에서 감면받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협력사에 대한 ESG 경영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에 'ESG 경영 지원' 지표를 신설해, 대기업의 ESG 상생 노력을 우대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044-215-4136),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내용은 동반성장위원회(02-368-8447)에 문의하면 된다.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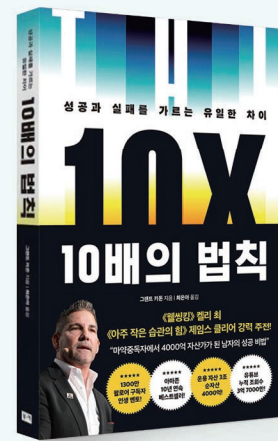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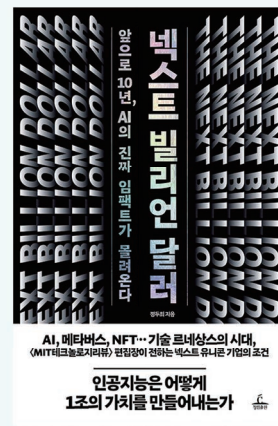
01 **초가치**
마크 카니 | 월북 | 35,000원



이 책은 금융 시장에서 왜곡되어온 가치에 대한 인식을 짚고,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세계적 위기의 시대에 세계적 차원에서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금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세계적 경제 리더인 마크 카니의 긴급하고도 대담한 통찰과 제언을 담은 책이다. 세계 금융의 핵심부에서 활동해온 저자 마크 카니는 2013년 비영국인 최초의 영국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해 2020년까지 브렉시트 이후의 혼란을 성공적으로 수습한 유능한 경제 리더이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있었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에는 과감한 판단과 정책적 결정으로 캐나다를 G7 가운데 위기에서 가장 먼저 탈출시킨 강력한 리더십으로 찬사를 받은 주인공이다. 세계 경제의 최고위급 직위에서 정책을 움직이고 핵심 인사들과 교류해온 그가 지금, '가치'와 금융의 역사를 되짚으며 진지하게 더 나은 미래 금융의 방법을 궁리하며 깨우친 지적 통찰을 제시한다.

02 **넥스트 빌리언 달러**
정두희 | 청림출판 | 17,000원

AI는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해온 그 어떤 기술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파괴적 혁신을 이끌고 있다.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AI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019년에는 1조 달러에 불과했지만 2037년이 되면 3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야흐로 AI 비즈니스가 거대한 임팩트를 만드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이 책은 앞으로 AI 비즈니스의 대폭발기를 예언했던 정두희 한동대 교수의 책으로, 2022년 AI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수익화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비즈니스 임팩트를 창출해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03 **10배의 법칙**
그랜트 카돈 | 부키 | 16,800원

이 책은 흡수저로 태어난 저자가 개인 파산과 마약중독을 극복하고 억만장자로 성공한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돈도, 재능도, 능력도, 인맥도, 명문대 졸업장도, 운도 없었던 저자는 어떻게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쌓고 탁월한 기업가, 투자자, 4,000억 자산가,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가, 1300만 팬을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되었을까? 눈부신 성공을 보장해주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10배의 법칙"이다. 10배의 법칙은 한마디로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미친 듯이 집착(전념, 몰입)하고, 올인하고, 무리한 약속을 하고, 끝없이 확장하고, 모조리 불태운다. 세상이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이런 행동력과 사고력이야말로 성공을 부르는 유일한 길임을 이 책은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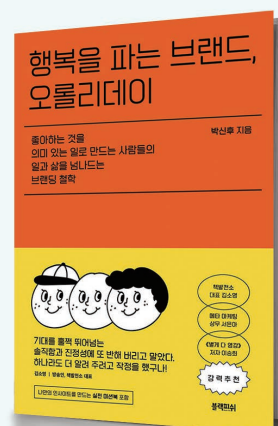
04 **투자하려면 경제신문**
이수정 | 라온북 | 17,000원

지금은 누구나 투자하는 시대, 너도 나도 재테크에 뛰어들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잘나가는 기업 주식만 왕창 사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한다. 몇 달 후, 믿었던 '그 기업' 주식은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나의 투자금은 마이너스가 되어 버린다. 투자를 하려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돈의 흐름을 알려면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제신문으로 경제 공부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국내 최초 경제신문 스크랩 코치인 저자가 실제 예시를 들어 차근차근 경제신문을 쉽고, 빠르게, 핵심만 보는 방법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경제 기사 내용이 나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꼼꼼하게 배울 수 있다.



05 **행복을 파는 브랜드 오롤리데이**
박신후 | 블랙피쉬 | 17,000원

이 책은 오롤리데이를 론칭한 박신후 대표가 지금의 오롤리데이를 만들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겪은 위기와 역경, 실패와 성공담을 담은 8년간의 성장 스토리이다. 명확한 아이덴티티, 한눈에 꽂히는 슬로건, 지갑을 열게 하는 캐릭터, 컨셉추얼한 비주얼, 찐팬을 불러 모으는 진심 마케팅으로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며 나날이 성장 중인 오롤리데이 브랜딩 노하우에 대한 출간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저자가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쳐 경험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아 온 실질 지식과 인사이트를 총망라했다.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일로 만든,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도 담겨있다. 🧠



세운철강 등 11개 지역기업

동해안 산불피해 지원 성금 전달

부산의 주요 기업인들이 사상 최대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해안 지역을 돕기 위해 부산사랑의열매(회장 최금식)에 지난 3월 25일(금) 성금을 전달하였다. 참여 기업은 세운철강(주), (주)세강, 은산해운항공(주), (주)코렌스, 송우산업(주), (주)대원플러스그룹, (주)아이제이동수, (주)파나시아, (주)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선보공업(주) 등 10개 기업과 (주)와이씨텍 박수관 회장 개인이 1,000만 원씩 모아 총 성금 1억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화승케미칼

자동차 용품 시장 진출

화승그룹의 정밀화학 대표 자회사인 화승케미칼(대표 우석훈)은 프리미엄 카 케어 브랜드 ‘카루미(Carlumi)’를 공식 론칭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화승케미칼은 브랜드 론칭과 함께 자동차 애프터마켓 쇼핑몰 ‘카루미’를 오픈하고, 차량 부위별 전문 광택과 세차 작업에 쓰이는 제품 12종의 카 디테일링 용품을 출시하고 2025년까지 해당 분야에서 연간 매출을 300억을 목표로 하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산해운항공(주)

‘We go together!’ 협약식

은산해운항공(주)(회장 양재생)은 3월 29일(금) 은산빌딩에서 2030 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서포터즈와 ‘We go together!’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붐 조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양재생 회장은 협약식에서 “범시민서포터즈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부산광역시회

경북·강원 산불피해 돕기 성금 3,000만원 전달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회장 성석동)는 3월 31일(목) 부산사랑의 열매(회장 최금식)에 경북·강원도 산불피해 주민 돕기를 위한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경북과 강원도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구호품 제공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성석동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경북·강원도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공헌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영엔티(주)

‘쌈씨가 바른기업’ 릴레이 캠페인 참여



삼영엔티(주)(회장 정원영)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쌈씨가 바른기업’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4월 5일(화) 밝혔다. ‘쌈씨가 바른기업’은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정원영 회장은 “좋은 취지의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며, 기업인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승그룹

부산 지역 사회복지관 5개소에 차량 지원



화승그룹(회장 현승훈)은 4월 6일(수) 부산 지역 사회복지관 5개소에 차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화승그룹은 장애인과 아동, 노인, 취약 계층 식품 운반 등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희망하는 차종을 새들원, 부산시장장애인복지관, 연제노인복지관, 사상구푸드마켓, 한울타리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였다. 차량 지원은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 기부한 3억 원 중 1억 5,000여만 원을 지정기부사업으로 편성해 부산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에어부산

괘사이판 현지 호텔과 제휴 프로모션 실시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은 괘 현지 호텔 5곳 및 사이판 현지 호텔 3곳과 제휴를 맺고 괘, 사이판 노선 승객에게 호텔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4월 6일(수) 밝혔다. 이벤트는 5월 31일까지며, 이벤트 기간 에어부산 항공권을 구매하고 호텔 예약 완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괘은 △더 츠바키 타워 △PIC 괘 △힐튼 괘 리조트 앤 스파 △호텔 닛코 괘 △리가로알 라구나 괘 리조트, 사이판은 △켄싱턴 호텔 △PIC 사이판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으로 자세한 내용은 에어부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주)골든블루

‘오렌만이지 블루문’ 캠페인 진행

(주)골든블루(대표이사 김동욱)는 따스한 봄을 맞아 ‘오렌만이지 블루문(Blue Moon)’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월 11일(월) 밝혔다. ‘오렌만이지 블루문’ 패키지는 블루문 500ml 6캔과 블루문 스페셜 전용잔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패키지는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1만 6,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패키지에 있는 ‘블루문 퍼펙트 서브’ 방법을 참고해 스페셜 전용잔에 따라 마시면 블루문의 최상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



한일냉장(주)

오종수 회장 산불피해 돕기 성금 1천만원 전달

한일냉장(주) 오종수 회장은 지난 11일 경북·강원 산불피해 주민 돕기를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부산사랑의열매(회장 최금식)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경북, 강원 등의 산불피해 복구와 구호품 제공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오 회장은 “이번 성금이 재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빨리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웨이브파크

동서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 기부



대원플러스그룹이 경기도 시흥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웨이브파크(대표이사 최삼섭)가 4월 12일(화)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이 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과 장제국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최삼섭 회장은 “올해 30주년을 맞는 지역 명문 동서대에 기업 이익을 환원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다시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뜻을 전했다.

BNK부산은행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생활 밀착형 홍보 이벤트 실시



BNK부산은행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자 생활 밀착형 홍보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4월 14(목)일 밝혔다. 이번 홍보 이벤트는 월 600만회 이상 노출되는 모바일뱅킹 이체 완료 페이지에 부산 소통 캐릭터 ‘부기’ 이미지를 삽입하고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엑스포 유치 시민 관심 유도 이벤트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블록체인산업특별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4월 21일(목)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부산블록체인산업 특별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부산블록체인산업 특별자문위원회는 수도권 전문가와 관련 기업인을 포함한 1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가상자산 제도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역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전략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즐거로운 회원생활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5월 중순~6월 초)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각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시간과 임금관리 실무

일 시 2022. 5. 12.(금) 09:30~17:30
장 소 부산상의 2층 중회의실
강 사 박현웅 노무사(노무법인 누리 대표노무사)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내 용

- ☑ 근로시간의 개념: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휴게시간, 주 40시간과 50시간
- ☑ 근로시간의 운영: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교대제 근로, 예외 및 특례규정
- ☑ 휴일 관리 전략: 휴일의 종류, 주휴일의 개념, 휴업과 휴직의 차이
- ☑ 휴가 관리 전략: 휴가의 종류, 연차유급휴가, 특수한 연차휴가
- ☑ 임금관리 및 각종 수당: 임금의 이해, 임금관리 프로세스, 각종 수당 운영 전략, 법적 책임

하루 만에 총무업무 마스터 하기

일 시 2022. 5. 16.(월) 09:00~18:00
장 소 부산상의 2층 중회의실
강 사 이종연 교수(한국생산성본부 전문교수)
수강료 회원 88,000원, 비회원 176,000원
내 용

- ☑ 총무역할 및 패러다임 변화: 총무업무의 특성, 업무 FLOW
- ☑ 사무행정 및 회의관리: 회의준비 및 회의 진행 실무 일반
- ☑ 행사전략 및 복리후생: 행사계획 기본전략 및 기초, 복리후생 트렌드 변화
- ☑ 총무자산 및 임대관리: 고정자산관리(PLM) 기본 프로세스, 전세권 및 임대차 기본 법률구조
- ☑ 총무계약 및 권리구제: 계약서 작성관리 기초, 매출채권 효율적 회수 방법론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회계상식과 기업승계 절세전략

일 시 2022. 5. 27.(금) 09:30~17:30
장 소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오종원 회계사(한울 회계법인)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내 용

- ☑ 중소기업 CEO가 외부여신평가 대비 알아야 할 회계상식
- ☑ 주택임대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구조,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 ☑ 상속세: 의미, 계산구조, 평가, 2022년 개정안, 주요 추정사례
- ☑ 증여세: 의미, 절세전략, 유의사항, 평가, 주요 추정사례
- ☑ 조세전문가의 실제 자문사례 해설과 개별상담: 상담사례 해설

중소기업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인사·노무관리 핵심 포인트 365

일 시 2022.6. 9.(목) 09:00~13:00
장 소 부산상의 2층 중회의실
강 사 이승주 노무사(노무법인 상생)
수강료 회원 44,000원, 비회원 88,000원
내 용

- ☑ 모집·채용 및 근로계약: 유의사항, 계약체결, 특이사항
- ☑ 임금: 개념, 임금의 종류, 지급방법,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 ☑ 근로시간 및 휴게: 개념 및 범위, 연장근로, 규제사항, 야간 및 휴일근로
- ☑ 휴일 및 휴가: 개념, 연차유급휴가, 보상휴가제
- ☑ 기타: 일가정 양립,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징계 및 관계 종료

Q&A로 알아보는 사례중심 징계해고 및 근로관계종료 관리실무

일 시 2022.6. 9.(목) 14:00~18:00
장 소 부산상의 2층 중회의실
강 사 이승주 노무사(노무법인 상생)
수강료 회원 44,000원, 비회원 88,000원
내 용

- ☑ 징벌 및 근로관계종료 일반: 종류, 사유, 주요 법리
- ☑ 징벌의 정당성 요건 및 사례: 사유, 원칙, 시효, 절차
- ☑ 징벌의 사례 및 경영상해고: 사유 및 종류별 정당성 인정여부
- ☑ 부당한 징벌의 구제 및 근로관계 종료: 구제신청, 사직 및 희망퇴직, 약정 등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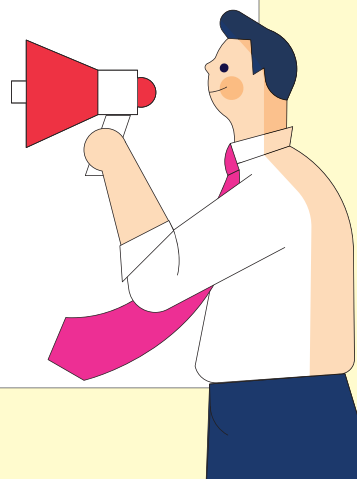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청년 취업지원과 기업의 인력난을 지원코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오니 지역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22. 1. 1.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최대 12개월 간 월 80만원씩 지원(최대 960만원)

지원한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최대 30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부산상공회의소 관할기업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해당지역 소재 기업만 진행 가능)



신청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 이상이며, 사업참여 1개월 이전부터 인위적 감원 없는 사업장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사업참여 신청 직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 지원 가능
('22.1.1.이후 채용자에 한하며, 기간도과 시 참여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중복참여 가능(참여요건 충족 시)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 1.~2022. 12.(예산 소진시 마감)
신청방법 워크넷 온라인 신청 www.work.go.kr/youthjob(운영기관 '부산상공회의소' 선택)
신청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T. 051-990-70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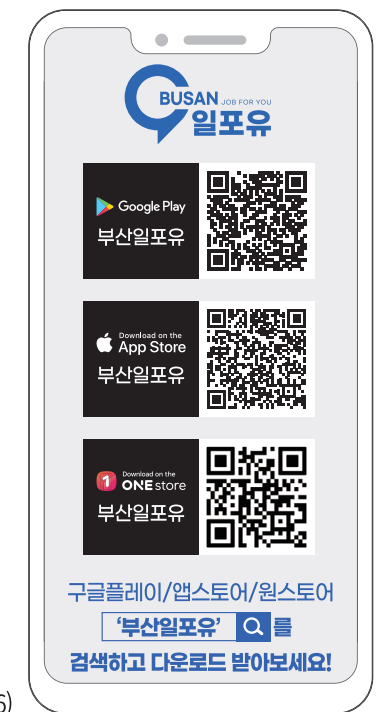
일자리 르네상스, '부산, 일포유' **일포유** **일루인 부산**

부산일포유 APP 운영 기업·근로자 지원사업을 한눈에!

기업·구직자·재직자 지원사업 정보모음

- 지원대상별 맞춤형 정보 제공!
- 통합검색 기능으로 간편하게 지원사업 확인!
- 대화형 검색톡(TALK) 기능으로 복잡한 사업도 쉽게 검색!
- 워크넷 사이트 연동으로 채용정보 검색 가능!
- 앱(APP)으로 부족할 때, 기업지원제도 무료방문컨설팅 신청!

| 지원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수행기관 | 부산상공회의소
|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T. 051-990-7086)



구글플레이/앱스토어/원스토어
「부산일포유」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부산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 사업 안내



사업기간 2021. 12. ~ (별도 종료 안내 시 까지)

사업목적 지역기업 구인수요 중심 기술교육훈련 수료 전문인력 일자리 알선·취업 지원

- ▶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 미래직업전문학교, 새동아직업전문학교, (재)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 부산기장직업학교, 센텀직업전문학교, 효성직업전문학교, 양산직업학교 등 9개 직업교육기관과 전문인력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지원내용 지역기업 구인 및 기술전문인력 구직 POOL을 통한 구직자 알선·상시매칭·일자리컨설팅 지원

채용공고 홍보 및 구직자 채용연계·알선 지원

- ▶ 부산상의 일자리 플랫폼은 부산 주력업종 관련 기술교육훈련 수료생 등 전문인력을 등록·알선·매칭지원

부산상의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 제공

- ▶ 구인기업이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전문인력 채용 시, 각종 일자리지원사업 연계 추진
* 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모집 중

신청방법 일자리플랫폼 URL: <http://job.bcci.or.kr>



KB 9 TO 6 BANK

전국 거점지역 72개 영업점

저녁 6시까지 영업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쉰 은행 영업시간 조정으로
별도 안내시까지 아침/저녁 30분씩 단축 운영합니다

영업시간 09:30-17:30



근무시간 중
은행 내점이 어려운
직장인과 사업자!



편안하고 여유있는
상담을 하고 싶은
고객분들!



오늘 꼭
가야 하는데
깜박하신 고객분들!

부산
울산
경남

- 달동종합금융센터
- 범일동종합금융센터
- 부전동종합금융센터
- 센텀시티종합금융센터
- 온천동종합금융센터

바렐 전기 아연 아연니켈 합금 표면처리 전문업체

Electrical Barrel Zinc
Znic-Nickel Alloy Plating



DONG-A PLATING Co., Ltd.

<p>SQ인증서</p>	<p>IATF16949</p>	<p>뿌리기술전문기업</p>
<p>일하기 좋은 뿌리기업</p>	<p>이노비즈 확인서</p>	<p>메인비즈 확인서</p>



동아플레이팅(주)
DONG-A Plating Co., LTD.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가길 20
부산청정도금센터 101, 107, 108, 111호
전화 | 051-263-2170 팩스 | 051-972-2173
E-mail | donga1089@dongaplating.com

<http://www.dongaplating.com>